

새 교총회장 선출된 보성 출신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

“교원평가·교장공모제 획기적 개선하겠다”



“지난 30년간의 교직생활은 가르치고 연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이 나라 교육과 교총 발전을 위해 도약까지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20일 제34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교총) 선거에 회장에 당선된 보성출신 안양옥(53) 서울교대 교수의 다짐이다. 부회장에 안 당선자와 동반 출마한 이남봉 경기 등 두전담총조 교장, 윤여택 충남 논산노성중 교사, 김정일 전북 전주문화초 수석교사, 박찬수 대구 오성중 교장, 문성배 부산대 교수 등 5명이 선출됐다.

“성과급·승진 등과 연계 안돼”

안 신임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모든 교육 현안을 각 교육주체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교총·전교조, 각 지역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

육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안 신임회장은 서울 효제초·동성중·고교와 서울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서울 서초중, 수도여고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교법인 동인학원(상문고) 이사장, 전국교육대 교수협의회장,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안 당선자는 현행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정부의 교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당선자는 “교원평가 결과를 성과급제와 승진 등에 연동시키는 것은 결국 교사들의 자발성과 자생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사들이 꾸준히 교실에서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점지향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대도시 몇몇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비리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교장공모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모제로 1명의 우수 교장을 뽑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9명의 교장은 결

국 좌절하게 돼 매우 우려할만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교총·전교조, 입법부, 그리고 진보·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매달 한 두번씩 모여 교육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교육주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한편, 안 신임회장은 고향인 보성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보성남초등학교에서 2년, 광주 계림·서석초교의 2년간 다닌 후 서울로 올라갔지만 방학 때마다 고향인 보성을 찾았기 때문이다. 특히 돈이 없어 완행열차만 타고 다니며 문학소년의 꿈을 키웠던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고향 보성의 내용은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년시절의 대부분이 남아있는 곳이라 틀리는 데로 한 번씩 불러가기도 하죠. 여전히 그리운 고향입니다.”

/광명기자 kps@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아·태 고관절 교육센터 조인식



화순전남대병원 관절센터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고관절 수술 교육센터’ 조인식 및 헌판식을 가졌다. <화순전남대병원 제공>

광주 장기요양기관협회 1주년 기념식



광주시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천세영)는 최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회원 등 800여명이 참가해 협회 1주년 기념식과 치매 자살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장기요양기관협회 제공>

“피약별 아스팔트 걸으며 흘린 땀방울 미래 자양분 될 것”

5·18모지까지 국토순례 36명 인솔 경남 원경고 심영보 교사

“한여름 피약별 아스팔트 길을 걸으며 흘린 땀방울이 학생들 생활에 활력을 주고 나아가 미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원경고 교사 8명과 함께 지난 14일 경남 합천 교정을 출발해 경남 거창~함양~전북 인월~남원~담양을 거쳐 5박6일간 181km를 걸으며 지난 19일 광주

에 도착했다. 하루 평균 30km가 넘는 강행군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양 발에 물집이 잡히는 힘든 여정속에서도 ‘월드컵 응원가’ 등을 부르고, 춤까지 추면서 즐겁게 행군했다. 남원에서는 한국-아르헨티나전 거리응원에 참가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전북 순창에서 담양으로 이어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을 인상적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한국, 피자버그 발명품 전시회서 금상 4개 수상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허진규)는 지난 18일(현지시각) 폐막한 ‘2010 미국 피자버그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한국발명품이 금상 4건 등 14건의 수상작을 냈다고 21일 밝혔다.

금상 수상작으로는 ㈜A4의 ‘등반기가 이동되는 좌석기구’, 박성용의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비상등’, 류필열에스씨의 ‘휴롬 슬로우 주사’ 등이다.

또 ㈜진생사이언스의 ‘선상’과 명진 케미칼의 ‘친환경 자작식 방수시트’는 각각 은상을 수상했다.

발명진흥회 관계자는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이 국제발명전시회는 국내 발명품의 우수성을 해외 시장에 알리는 자리가 됐다.”라며 “우수작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 특별 전시된다.”라고 말했다. 미국 피자버그발명전은 스위스 제네바발명전, 독일 뉘른베르크발명전과 함께 세계 3대 발명전시회로 꼽히며, 올해는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등 15개 나라에서 280여점이 출품됐다.

/연남뉴스

김석산 어린이재단 회장 별세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친 김석산 어린이재단 회장이 20일 오후 9시 별세했다. 향년 69세.

지난 1941년 일본 규슈에서 태어난 김 회장은 해방과 동시에 가족과 함께 귀국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6·25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대전의 아동복지시설 천왕원에서 자랐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종숙 여사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 오전 9시. 문의 02-2072-2011.



조삼규 전 강진군수 별세

조삼규 전 강진군수가 21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고인은 30여년간 전남도청에 재직하면서 광주 동구·서구청장, 완도·보성·강진·고흥·화순·수주군수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오유초 여사와 현재(매일경제 편집국장)·완재(담양현대 의원 원장)·정재(캐나다 거주)·광희씨 등 3남 1녀, 사위 양형모(메디칼 안과 원장)씨가 있다. 빈소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문의 062-231-8901.



중국 노인들에 전통문화 알린다

전남도·화순 나드리복지관 한마당 잔치

한·중 양국의 노인들이 한국 전통문화를 즐기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전남도와 화순군 나드리노인복지관(관장 김재진)은 21일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한·중 노인교류 한마당’ 잔치를 갖고 우의를 다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서 나드리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중국 산둥(山東)성 관광객 70여명에 대해 4개월여 동안 준비한 아코디언, 민요, 댄스스포츠, 풍물 공연을 선보였다.

잔치는 한·중문화 교류 활동을 통해 우리 문화와 복지시설 운영 실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열렸으며,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개관후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어르신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나드리노인복지관은 2788㎡(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의 호남 최고 시설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어울려진 첨단 복지시설이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Advertisement for a banquet at the Golden Phoenix Restaurant, including dates, times, and menu items.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 광주무용제 대상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이 제19회 전국무용제에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광주무용제에서 ‘세번째 썸, 벽’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안무상은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의 공진희씨가, 연기상은 한아름 씨가 각각 수상했다. 대상 수상작은 오는 10월21일부터 30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제19회 전국무용제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Local news and events section including various notices, announcements, and community news.

Local news and events section continuing with various notices, announcements, and community news.

Local news and events section continuing with various notices, announcements, and community news.

Local news and events section continuing with various notices, announcements, and community news.